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뒤흔칩니다



외 교 통 상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동 및 아시아 이슬람국가 반미 시위 관련 안전공지 홍보 협조

수신 : 여행경보단계 전파 기관

발신 : 외교통상부장관(재외국민보호과장)

우리부는 최근 반미 시위가 발생하여 치안불안이 우려되는 중동 및 아시아 이슬람국가 방문, 여행하려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공지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기 공지문. 끝.

외교통상부장관

수신자 한국관광공사사장,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총무국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선교국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회장(위기관리국장),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한국무역협회장(국제협력실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인사팀장), 해외건설협회장(지역1실장),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장(봉사단담당과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문서접수실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국가정보원장,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관광과장),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원양정책과장), 경찰청장(외사정보과장), 해양경찰청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대통령실장 이하 사본)

3등서기관 이수원

재외국민전결 2012. 9. 18.
보호과장 박기준

협조자

시행 재외국민보호과-13242 (2012. 9. 18.) 접수

우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 <http://www.mofat.go.kr>

전화번호 02-2100-7587 팩스번호 2100-7974 / swlee06@mofat.go.kr / 비공개(2,6)

최근 중동 및 아시아 이슬람국가 반미 시위 관련 안전공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최근 이슬람을 모독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제작, 유포된데 항의하는 반미 시위가 리비아(9.11), 이집트(9.11-14), 예멘(9.13) 등 중동지역을 비롯하여,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이슬람국가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단 주재 영국, 독일 대사관도 시위대의 공격을 당하는(9.14) 등 시위가 확산될 조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및 아시아 이슬람국가를 방문·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방문·여행 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해당 국가 안전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공공기관 등 대중시설, 시위현장 주변 출입과 불필요한 (야간)외출을 자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지인과의 접촉시 종교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언행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문·여행 중 사건사고나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영사콜센터(국가별 접속번호+800-2100-0404)나 현지 우리 공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